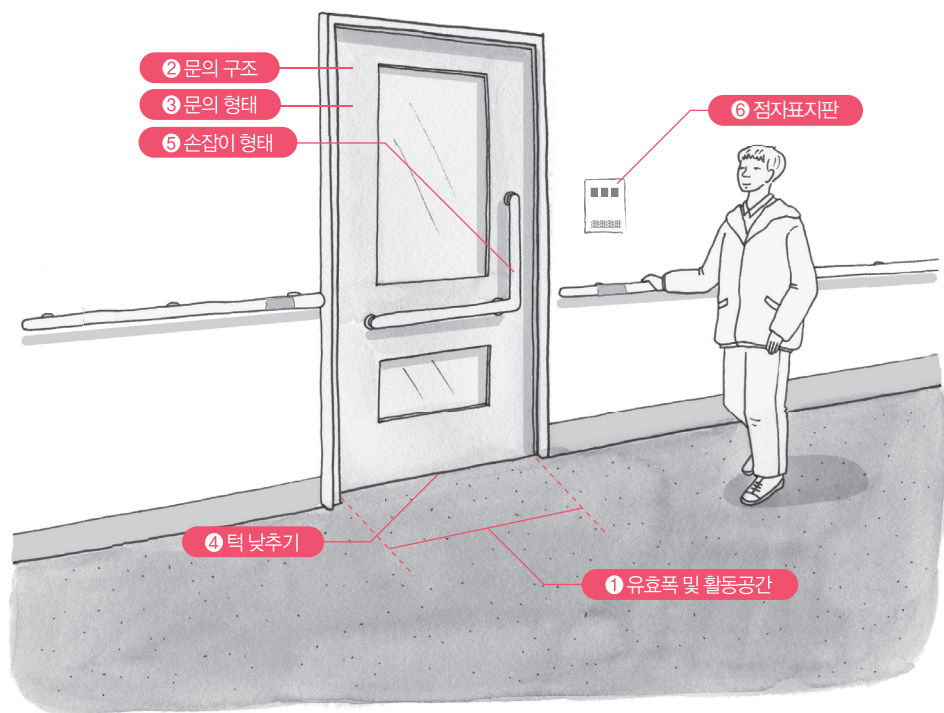


4.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(문)



■설치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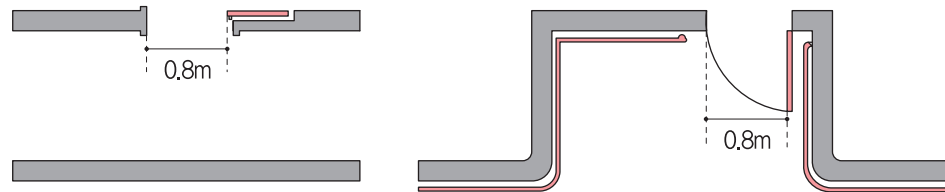
각 실의 출입문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이 손잡이를 잡고 여닫기에 용이하여야 한다. 또한 출입하기에 지장이 없는 폭, 구조, 단차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.

■설치요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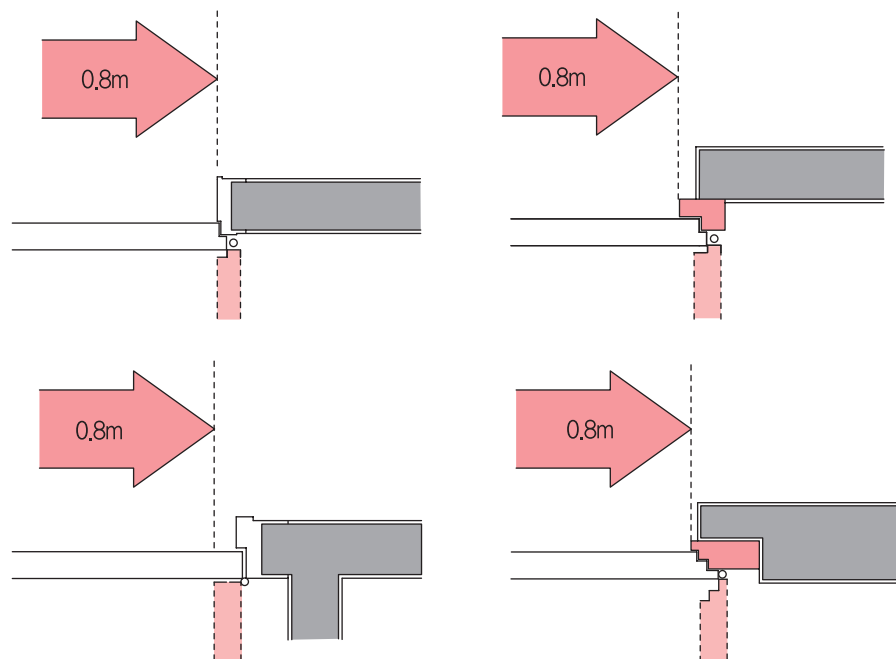
- 출입문의 폭보다 유효 통과폭이 항상 좁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.
- 손잡이 형태에 따라서 출입문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.
- 손잡이가 달린 쪽에 일정한 여유공간이 없으면 손잡이를 잡을 수 없다.
- 열린 출입문이 통로를 차단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방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) 유효폭 및 활동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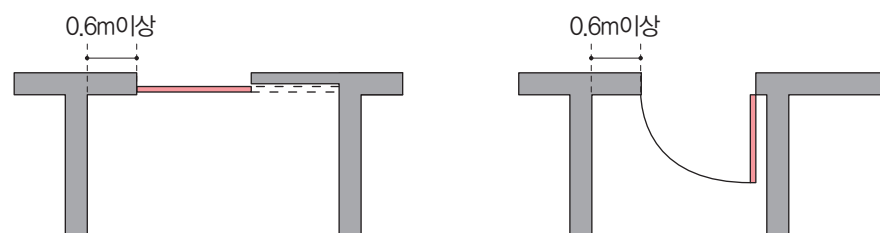
- 각 실 출입문의 최소 통과 유효폭은 0.8m 이상이어야 하고, 가능하면 0.9m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지나치게 폭이 큰 내부출입문(1.1m 이상)은 여닫기가 힘들거나 문과 휠체어의 회전범위가 커져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다.



-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결정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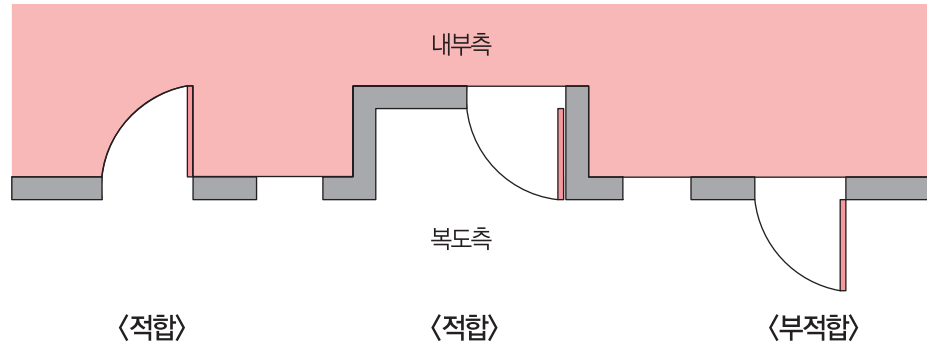


- 손잡이가 있는 쪽에 최소 0.6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다.
-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.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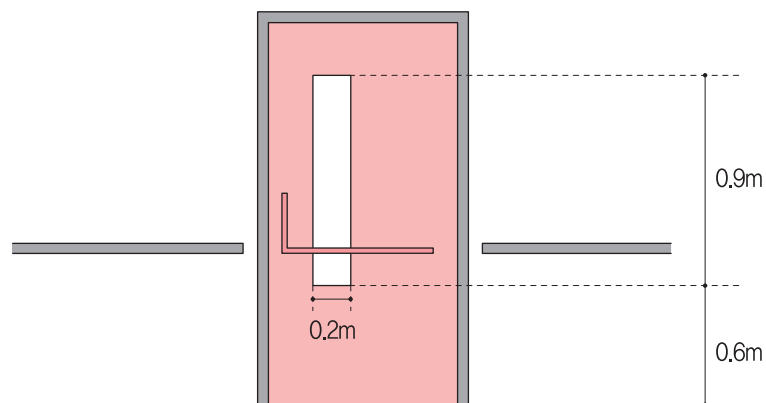


2) 문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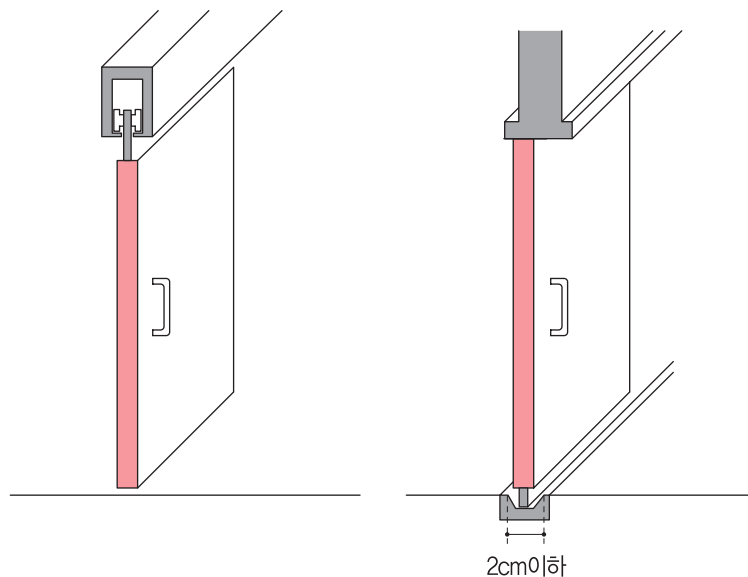
- 열린 출입문이 통로를 차단하거나 돌출된 상태로通行 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.



- 어린이, 휠체어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출입문의 경우 바닥에서부터 높이 0.6m되는 지점에서부터 폭 0.2m, 높이 0.9m 정도의 투시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
- 주름문, 커튼 등 유동성이 크거나 고정시킬 수 없는 출입문은 사용할 수 없다.
- 미닫이문의 경우 바닥면 레일은 반드시 돌출되지 않도록 매립되어야 하고, 틈의 간격은 2cm 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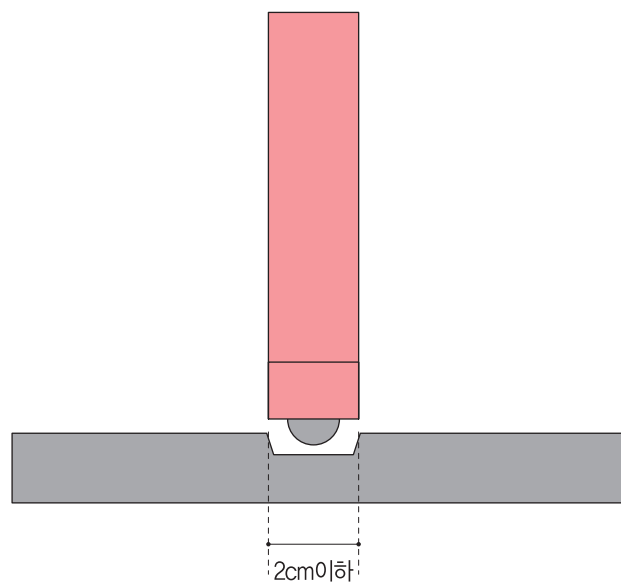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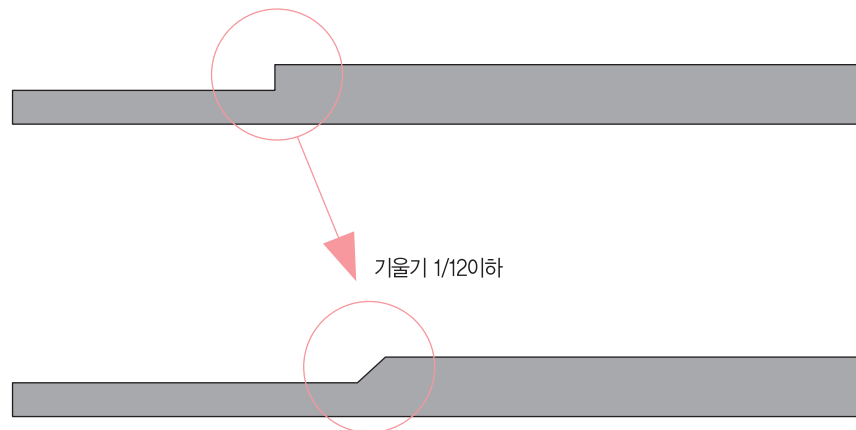


3) 문의 형태

-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한다.
-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,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.
-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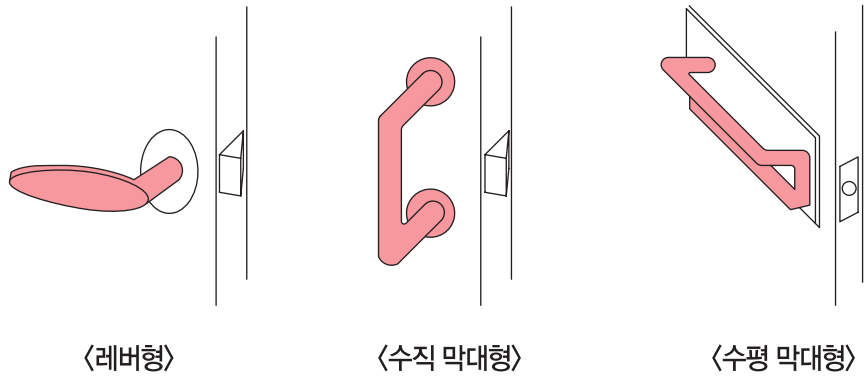
4) 턱 낮추기

- 2cm 이하의 턱이라도 휠체어가 오르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사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턱 낮추기를 위하여 1/12를 초과하는 경사면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.



5) 손잡이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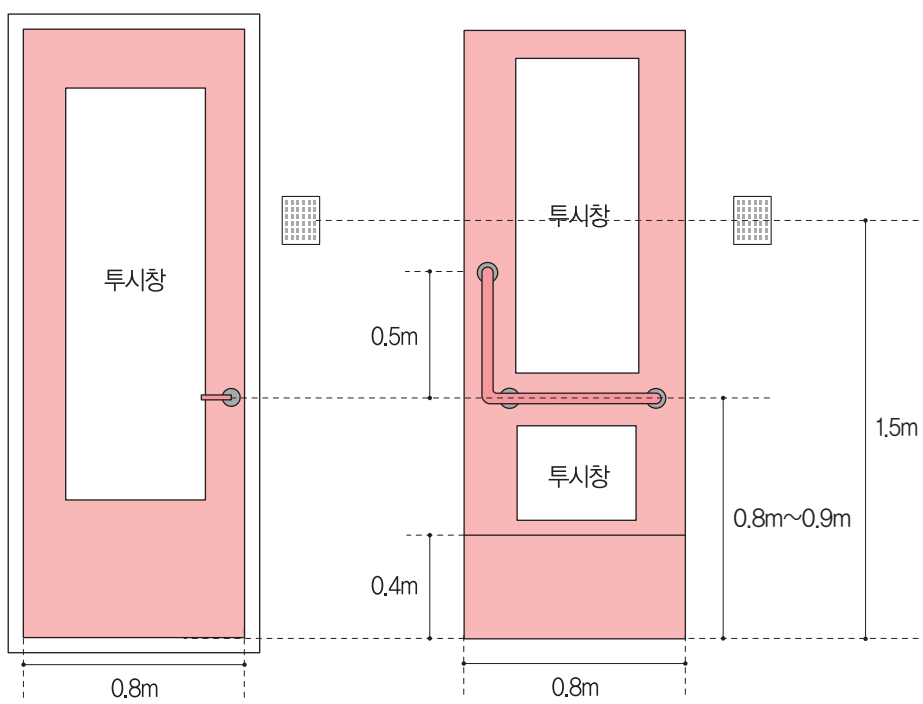
- 손잡이 형태는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지렛대형(일명 레버형 : lever type)으로 하여야 한다.



- 손잡이의 끝부분에 옷자락이 걸리거나 손으로 감싸 잡을 수 없는 형태는 피해야 한다.
-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8m~0.9m의 범위 내에 부착하는 것이 적합하다.

6) 점자표지판

-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에는 벽면의 1.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.
- 건물 및 실내사무실 등 출입구(문)의 경우 호실의 번호, 명칭 등이 점자로 표기되어야 한다.



<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위치>

7) 기타 설비

- 건축물 주출입구 0.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.
-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
〈건축물의 주출입구〉